

◎…또한 83년부터 火, 金요일에는 의료보험 실무자와 사업장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계몽강좌를 실시한 결과 전달교육 홍보효과가 커서 건강학교 개설 동기가 되었다는 趙대표이사는 그의 건강철학을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한다.

『인생은 꼭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려려면 몸이 건강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고락을 불구하고 관찰하는 투철한 정신적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뜻이 심어져야 합니다 또한 내가 못이루면 다음대에라도 이루어진다는

씨앗(뿌리)이 심어져야 하겠지요…』

◎…건강관리협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 기생충 및 성인병퇴치 영화와 스태이드도 상호협조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당부하기도-.

◎…이런 결과가 「의료보험」 잡지에 발표되자 韓一合纖의료보험조합에서는 건강학교에 대한 자료협조를 요청해 오기도 해서 담당자들을 흐뭇하게 하기도 했다.



조 동 인 (上)

건강학교를 통한 국민보건교육 및 예방사업 전개

1. 보건예방사업의 필요성

우리 인간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기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짧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 이상 장수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병약한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활기에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와같이 인생에 있어서의 수명의 장단, 신체의 강건이나 허약은 우연의 현상이 아니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인간들이 자기가 태어난 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를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으로 천수를 누려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오래살기를

소망한다. 이 소박한 소망은 20세기에 들어와 과학의 발달로 전염병의 퇴치와 의술의 발달등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우리만큼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기대에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의 증가추세를 보면 1910년 22세에서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무려 3배가 넘는 68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은 폭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세계최장수 국으로서 우리나라 보다 9년이 많은 77세의 평균수명을 보이고 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것도 아닐뿐더러 천수를 더 길게 타고난것은 더욱 아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

방에 힘쓰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용당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분명히 알아야하며 이 건강법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같이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서 시기적절한 사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보건예방사업의 과제이다.

2. 경기 제6지구 의료보험조합의 보건 예방사업

필자는 1982년 당조합의 경영책임을 담임한 이래 끊임없이 보건예방사업에 대하여 생각해왔다. 나의 짧은 생애중에서 의료보험사업의 한모퉁이를 담임케 된 뜻은 단순한 자격관리나 보험급여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의료보험 가족뿐 아니라 온국민들이 병고의 환난을 모면하도록 부르짖어 불행한 일을 줄여야 하겠다는 것이 내 생의 소명이라고 강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적은 노력으로 다만 발병율을 10%만 줄일수 있다면, 더욱노력하여 20% 더 욕심을 부려서 50%까지 줄인다면 이세상에서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또 일면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음은 말할것도 없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수 있다는데 더욱 큰 뜻이 있다. 심신이 건강한사람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수 있지만 병약한 사람은 공헌은 고사하고 남에게 폐까지 끼치면서 연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필요에서 당조합에서는 1983

년도 부터 보건예방사업을 4년동안 적극적으로 전개해본 결과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간단히 소개코자 한다.

가. 보건예방사업의 전개

당조합에서는 1983년에 의료보험의 인식제고와 보건예방사업을 위하여 교육부서를 특별히 설치하고 꾸준히 교육에 힘써왔다.

교육대상은 사업장대표, 보건지도위원, 의료보험 실무자등을 대상으로 8개 과정의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자의 범위를 30명내로 한정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생과 건강, 기생충구충, 금연, 성인병과 그 예방대책 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 증진을 포함한 실무면과 인생과 건강, 기생충구충, 금연, 성인병과 그 예방대책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조합의 보건지도위원은 기업의 간부로서 사업장 대표자가 선임하여 조합에 통보한 자를 의료보험 대표이사 명의로 당해기업의 보건지도 위원으로 위촉하고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후 당해기

업의 의료보험 관리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합에서 제공한 건강책자 또는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보건 예방사업을 실시케하고 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4년간 소집교육은 표1에서 보

달교육을 되풀이하여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금연에 관한 책자와 이미 발간된 책자의 종합본으로서 “인간 천수 120년을 사는 지혜 국민건강강좌”란 책자를 발간중에 있다.

당조합에서는 예방사업으로 기생충

표 1. 교육실적표

교육명	'83		'84		'85		'86		합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신규천입사업 장 대표자 교육등 8개과정	45	1,290	90	1,986	80	2,110	97	2,338	312	8,724
전 달 교육 면 담 교육 순회홍보			520	20,940	950	48,678	2,247	71,803	3,717	141,421
계	45	1,290	610	22,926	1,041	53,094	2,345	75,225	4,041	153,535

는 바와 같이 8,724명을 실시하였고, 각 사업장에서 보건지도위원이 실시한 전 달교육실적은 141,421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업장 요청에 의한 순회교육도

구충과 성인병검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구충사업 실적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년도에 수혜자의 22% 해당인 43,724명의 검변실적과 81년

표 2. 건강문고 발간실적

제목	저자 및 감수	발간부수	비고
○ 건강하게 장수 합시다 등 10종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홍창의 박사, 최규완 박사, 이문호 박사, 김건열 박사 등) ○ 고려대학교 : 유태종 박사 ○ 조동인 경 6 의보 대표이사	347,600	*금연책자 및 국민건강강좌 책자 발간중.

1,281명을 실시하여 4년간 교육 총실적은 4,041회에 153,535명에 이르고 있다.

당조합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홍창의 박사등 보건계 전문박사 6인과 협동으로 “건강하게 장수합시다”등 10종의 보건책자 347,000부를 출판하여 이를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배부하고 전

이래 6년간 4,237명의 기생충 감염자를 포착 치료했다.

(필자=경기제 6지구 의·보 대표이사)

